

# 주부신행담

## 처처에 계신 부처님

### “자기 죽어 하심할줄 알아야 한다” 스님은 잠들때까지 일만 시켰다 비구니계를 받기전 나는 하산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날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나'를 참구한다. 아직 뚜렷한 답을 얻지는 못 했지만 예전에 맞보지 못했던 마음 한편 편안함을 느낀다.

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발당 문턱을 넘나든게 어느새 30여 년. 어릴적 걸을 수 있으면서부터 어머니와 짝에 다니기 시작했던 나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유난히 짝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지만 그런 30여 년의 내 모습은 허깨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최근에야 깨달았다.

내 마음 하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릴적부터 스님과 가깝게 지내고, 부처님 말씀을 조금 공부했답시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세요. 마음공부 좀 하시는게 어떻겠어요"라며 건방울 떨며 살아왔다.

물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자만에 빠져 살아왔는지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그저 자주 아픈 몸 때문에 짜증스러워하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는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권위있는 의사가 중병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환자의 증세를 호소하게 된다. 반대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못 믿고 내심 '이 의사 똥팔이 아니라 자신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어릴 적 나는 그렇게 살았다.

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팠다. 물론 병원에서는 선천적으로 심장 좌심실이 조금 좋지 않을 뿐 모든게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다.

외상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지도 않았다. 중학교 2학년때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1.5cm가 짧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통사람 어느 누구나 한쪽이 길거나 짧다며 아프지 않으면 걱정할게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과 생활에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되었다. 매일 이유없는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힘이 없고 숨이 차 마음놓고 다니지 못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는 잠집에 가 나의 증상을 호소 하셨는데 무당은 내게 영가가 씌었다고 했다. 신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굿을 해 신을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무당의 말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으며 나를 학교까지 결석시키고 한편 굿을 받으시고는 울며 내가 얼른 낫게 해 달라고 비셨다. 얼마 후 그런 굿이 한 번 더 있었다. 하지만 소

용이 없었다. 고 2를 지나고 3이 되었고, 대학 진학을 해야 했지만 '나는 대학공부를 해서 무엇하냐' 하는 생각을 했다. 학교 공부대신 법정스님의 <서있는 사람들>이며 불교 책들을 끼고 살았던 나는 세상이치는 학과 공부에 있지 않다고 믿었다. 그리고 출가를 결심했다. 어머니도 그런 내 생각을 존중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친구분들을 만나면서 흔들렸고, 스님과 의논 끝에 중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하리라 설득하셨다. 다행히도 대학에 무사히 진학한 나는 입학 동기가 된 스님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론 격론하면서 식견을 넓혀갔다. 그러나 나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고 경북의 모 사찰에서 머리를 깎았다(은사 스님은 스님께 누가 깎을까 밝히지



그림 · 문병성

## 자원봉사 · 결혼 · 남매의 엄마로 살며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묻고 또 물어

앞에서 번번히 옷을 벗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사(愚事)를 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승려로서 살았지만 나는 아직 중물이 들지 않은 내 자신을 직책하며 방향을 잃었다.

그렇게 1년여를 지켜만 보시던 스님은 어느 이른 아침, 나를 조용히 불러 가까이 앉게 하시더니 "처처(處處)에 부처님이 계시니 꼭 절이 아니라도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산을 내려가라 하셨다.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짐을

싸 짐을 나서야만 했다. 내가 정말 갈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른게 혼돈스러웠다.

집에 돌아온 나는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나를 돌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한달여를 보낸 나는 수소문해 경기도 상남에 있는 복지시설을 찾아가 매일 출퇴근을 하며 노인들 돌보는 일에 매달렸다. 노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오물을 치우면서 나는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삶에 용기가 생겼고, 두통도 말끔히 사라져 몸이 힘이 났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이 솟아날 때 건

강은 조절되고 행운이 모여든다는 것을 어렵게 알게 되었다.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 사람들은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해 남편을 키우며 행복이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느꼈만큼 마음의 안정을 찾은 나는 '처처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스님의 말씀과 행사시절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남편의 일급을 조금씩 모아 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인연 닿는 곳을 찾아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학교 다닐때 공부하던 책도 꺼내 다시 읽고 있다.

환경이 좋아야만 기쁨이 있고, 표정이 밝아지고,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니었다. 주인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고 보니 어느 누구 한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내가 갈구했던 것을 의미하게나마 보여준 그들과 삶을 나누며 살아간다" 한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김경희(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사이버 선택대왕 신종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중소리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제작 중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지 은은한 중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에밀레종(주석)  
재질: 주석  
종류: 개금, 골동  
규격: 종 17cm x 12cm  
가격: 200,000



■사이버 에밀레종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30cm  
좌대크기 15cm x 15cm  
종 5cm x 11cm  
가격: 143,000



■사이버 에밀레종 (나무사각)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26cm  
종 5cm x 11cm  
가격: 143,000

쇼파몰 주문방법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판매원: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제조원: 금성 통상 (전국대리점 모집)

불사판속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동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Tel: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http://mail.buddhapia.co.kr

•Tel: 051)324-3731 •Fax: 051)324-3733

###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 대상: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2명 (고승기념예달 8개/세트)
- 2등: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법패집 각 1점)
- 5등: 50명 (참선명상방식 각1개)
- 마하몰상: 200명(법성계걸림 각1개)

###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누십니다

구입처 •서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대구: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6, 미하몰 대구지사 053)768-8006,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부산: 상정원 051)646-0256,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광주: 미하몰 광주지사 062)375-9966, 대전: 대전불교사 042)257-0318, 전주: 전주불교신문사 062)282-7054, 창원: 경남불교신문사 0551)295-8911, 진주: 미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5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